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박현수* · 정혜원**

초 록

이 연구는 기존 한국사회의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했던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근거로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비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초기 비행청소년(early starter)와 후기 비행청소년(late starter)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행발달경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기에 비행에 진입하는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후기에 비행을 진입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 비행친구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통제는 비행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에 비행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 비행친구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의 경우에는 초기 비행청소년이나 후기 비행청소년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주제어 : 초기 비행청소년, 후기 비행청소년,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사회학박사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사회학박사

I. 서 론

사람들은 출생이후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이나 심리적 또는 사회생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아동기를 거쳐 사춘기를 겪고 성인기가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성장하며, 인지성향의 경우도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이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이순래·박철현, 2000). 따라서 특정발달단계에서 행위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역으로 전 단계에서 중요했던 요인이 그 후의 단계에서는 행위자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어떤 발달단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비행이론들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발전-생애과정이론(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에서는 청소년비행에 대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고려하면서, 청소년들이 비행에 관여하는 시점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생애과정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범죄경력패러다임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만성범죄자 집단의 존재확인이다. 소수의 만성범죄자 집단의 확인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전체 범죄발생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후 만성범죄자들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만성범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낮다는 것이다.

베어드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만성적인 범죄자로 발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범죄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Barid et al., 1987). 패터슨과 그의 동료(Patterson et al., 1989; Patterson and Yoerger, 1993)들은 비행시작연령에 따라 초기 진입자(early starter)와 후기 진입자(late starters)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초기 비행진입자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만성적인 비행·범죄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기 비행진입자들은 청소년기에 비행행동을 시험해 보지만 단기간에 중단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atterson et al., 1989). 쏜베리와 크론(Thornberry and Krohn, 2001)은 일찍 비행을 시작한 경우(early-onset)는 늦게 비행을 시작한 경우(later-onset)

와 다르게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s), 신경심리적 결손, 보호요인 부재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비행을 비교적 어릴 때 시작하고,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며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지속되고 영속된다고 보았다. 샘슨과 라움(Sampson and Laub, 1993, 2003)도 어려서 문제성향을 보인 아이들은 부모와의 유대가 악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점차 비행청소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경험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후 비행까지도 상이하다는 위의 연구들을 통해,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설명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집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tterson et al., 1989; 1992; Moffitt, 1993).

그런데 위와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자료(longitudinal data)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자료가 구축됨으로써¹⁾,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기존 한국사회의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했던 변수들인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근거로 청소년들이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차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

발전-생애과정이론은 범죄경력패러다임을 기반으로 1990대에 두드러졌던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가진 세 가지 패러다임들인 위험요인방지패러다임과 발전범죄학 그리고 생애과정범죄학을 통합시킨 이론이다(정혜원, 2009). 발전-생애과정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범죄경력패러다임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만성범죄자 집단의 존재확인이다. 기존의 정태적 연구와 같이 일정시점에서 자료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를 수집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들이 태어난 시기가 서로 다르고, 개인별로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범죄자의 규모를 추량하기가 어렵다(이순래·박철현, 2000). 만성범죄자 집단의 존재를 확인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울프강 등이 1972년에 발표한 필라델피아 출생집단연구를 들 수 있다. 울프강 등은 전체범죄자 중에서 6%가 고질적인 만성범죄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수의 반성범죄자 집단의 확인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전체 범죄발생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후 만성범죄자들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만성범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낮다는 것이다.

베어드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만성적인 범죄자로 발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범죄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최초범죄연령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arid et al., 1987). 이와 유사하게 로빈스의 경우도 성인기에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에 행동장애가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만성적 범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보였다(Robins, 1978; 이순래·박철현, 2000 재인용).

만성범죄자들의 최초범죄연령은 10대 초반으로 이들은 대체로 어린나이에 범죄에 빠져들며, 법률 위반행위인 범죄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로 가출, 사회부적응, 배우자 학대 등 다양한 종류의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며,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만성범죄자들의 최초범죄연령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행을 경험하는 시점에 따라 이후 비행까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설명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집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atterson et al., 1989; 1992; Moffitt, 1993).

이와 관련된 주장은 발전-생애과정이론의 연구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패터슨, 쏘베리와 크론, 모피트 등이 있다. 패터슨과 그의 동료(Patterson et al., 1989; Patterson and Yoerger, 1993)들은 비행시작 연령에 따라 초기 진입자(early starter)와 후기 진입자(late starters)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쏘베리와 크론(Thornberry and Krohn, 2001)는 일찍 비행을 시작한 경우(early-onset)는 늦게 비행을 시작한 경우(later-onset)와 다르게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s), 신경심리적 결손, 보호요인 부재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비행을 비

교적 어릴 때 시작하고,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며 상호작용에 의해 더욱 지속되고 영속된다고 보았다. 모피트는 청소년비행집단을 생애지속범죄자(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와 청소년기 한정비행자(adolescence-limited delinquents)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생애지속범죄자란 개인의 성향면에서 결합이 있어 어려서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범죄로부터 손을 씻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청소년기 한정비행자는 성향면에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지만 청소년기에 국한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을 지칭한다(Moffit, 1993, 1997).

2. 자기통제, 부모애착, 비행친구

1) 자기통제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적절한 사회통제나 개인적 차원에서 억제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Hirschi, 1969). 통제는 행위자의 내부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개인적 차원에서 순간적인 만족 또는 충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일탈 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을 순간의 유혹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Gottfredson and Hirschi, 1990: 90)”을 가지고 있다(민수홍, 2006 재인용). 낮은 자기통제력의 근원은 비효과적이고 불완전한 사회화, 특히 잘못된 자녀양육에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10세-12세 이전의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평생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때문에 일찍 비행을 시작한 초기 비행청소년집단이나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어 비행을 경험하기 시작한 후기 비행청소년집단 모두 자기통제력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 혹은 범죄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비행이나 범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rasmick et al., 1993, Longshore, 1998; Longshore and Turner, 1998; Pratt and Cullen, 2000; Wood et al., 1993; 김두섭·민수홍, 1996; 민수홍, 1996; 1998; 2002; 2005; 2006, 이성식, 2007). 최근에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통제이론의 주장을 검증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유년시절에 측정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범죄나 유죄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Polakowski, 1994; Wright et al., 1999), 그리고 이러한 자기통제력이 직장에서의 비행도 설명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Gibson and Wright, 2001).

2) 부모애착과 비행친구

패터슨과 그의 동료(Patterson et al., 1989; Patterson and Yoerger, 1993)들은 비행시작연령에 따라 초기 진입자(early starter)와 후기 진입자(late starters)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 어려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기 진입자란 아동기에서부터 빈약한 부모양육행동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로 심각한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습적인 또래집단들로부터 거부당하기 쉽다. 즉 친구집단, 학교 등 주요한 준거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한 초기 비행진입자들은 그들만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후기 비행진입자는 청소년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비행행동을 시험해보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흔히 동반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혼돈이나 부모의 이혼, 실직 등으로 인해 부모양육행동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다. 부모양육행동의 기능약화는 결국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이는 비행행동의 시도로 이어진다.

패터슨과 그의 동료들은 초기 비행진입자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만성적인 비행·범죄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기 비행진입자들은 청소년기에 비행행동을 시험해 보지만 단기간에 중단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았다(Patterson et al., 1989).

바투스키와 동료들의 연구(Bartusch et al., 1997)에서는 9-10세의 초기진입 비행의 경우는 개인성향의 요인들이 중요하고, 그 이후 13-15세의 후기 진입비행의 경우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요인이었음을 제시하였다. 샘슨과 라움(Sampson and Laub, 1993, 2003)도 어려서 문제성향을 보인 아이들은 부모와의 유대가 악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점차 비행청소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동안 지속적인 비행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후기에 비행을 경험하기 시작한 후기 비행진입자들에게서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순래, 2005). 그러나 이성식의 연구(2007)에서는 반대로 초기진입자의 경우에는 중비행에서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이 더 컸고, 후기 진입자의 경우는 지위비행에서 비행친구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연구에서는 비행에 진입하는 시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 간의 시간에 따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보다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종단적 자료는 횡단적 자료와는 달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청소년의 비행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행진행과정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 중에서 초등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조사를 시작한 중등패널의 조사자료는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초등패널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 연구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등패널의 조사대상은 2004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이다. 표집방법으로는 층화다단계집단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에 의해 서울시·5대 광역시·시군(도)의 지역범주별로 인구 비율을 산정하여, 각 지역범주별로 모집단 비율에 맞게 대상 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이경상 외, 2004).

2. 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 간의 비행경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을 구분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이후 분석에서도 적용하였다. 초기 비행청소년은 1차년도 조사시점인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후기 비행청소년은 1차년도 이전에 비행을 경험하지 않았고, 2차년도 이후에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1) 비행

비행 변인은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키기’,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친구를 헐박하기’, ‘음란물 보기’, ‘술마시기’, ‘담배 피우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그리고 ‘가출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지난 1년간 경험한 횟수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점(outlier)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혀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과 같이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표 1> 비행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항 목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초기 비행 청소년	음란물 보기	1,000	1,000	1,000	1,000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0,480 ***	1,049 ***	0,632 ***	2,534 ***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키기	1,420 ***	0,880 ***	1,804 ***	1,800 ***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472 ***	1,582 ***	2,088 ***	2,396 ***
	다른 친구를 협박하기	0,831 ***	2,355 ***	1,539 ***	1,839 ***
	술마시기	0,783 ***	1,419 ***	1,048 ***	1,501 ***
	담배 피우기	0,668 ***	1,692 ***	1,097 ***	2,127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0,290 **	2,294 ***	1,472 ***	2,820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1,110 ***	2,870 ***	1,320 ***	2,945 ***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0,931 ***	2,092 ***	0,526 **	1,691 ***
	가출하기	0,232 *	2,035 ***	0,422 **	2,982 ***
Cronbach's Alpha	.589	.754	.606	.679	
후기 비행 청소년	음란물 보기	1,000	1,000	1,000	1,000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0,099	0,111	0,924 ***	6,681 **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키기	0,257 ***	0,669 *	0,835 ***	4,277 **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0,175 **	0,649 *	0,718 ***	3,248 **
	다른 친구를 협박하기	0,383 ***	5,140 ***	1,242 ***	5,151 **
	술마시기	0,701 ***	0,095	1,985 ***	5,271 **
	담배 피우기	1,282 ***	0,019	1,836 ***	5,600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0,779 ***	0,543 *	0,954 ***	4,759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0,944 ***	3,150 ***	2,320 ***	7,181 **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0,679 ***	2,014 ***	1,607 ***	1,387 *
	가출하기	0,870 ***	0,036	1,244 ***	6,733 **
Cronbach's Alpha	.634	.376	.578	.602	

* p < .05, ** p < .01, *** p < .001

비행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 변인 중에서 '음란물 보기'에 대해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관측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비행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부터 5차년도 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최소 .589에서 최대 .754까지 나타나고 있다.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음란물 보기’에 대해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관측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3차년도를 제외하고 모든 비행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신뢰도 계수도 최소 .578에서 최소 .634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년도에서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3차년도에서는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술마시기’, ‘담배 피우기’, 그리고 ‘가출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신뢰도 계수도 .376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2차년도 비행항목이 하나의 비행항목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재구성하였다.

2)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2>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항 목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초기 비행 청소년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000	1,000	1,000	1,000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장을 보이신다	0,875 ***	1,009 ***	1,007 ***	1,031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0,992 ***	1,095 ***	1,087 ***	1,019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0,814 ***	0,997 ***	1,039 ***	1,068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0,882 ***	1,024 ***	1,060 ***	1,081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148 ***	1,150 ***	1,140 ***	1,141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154 ***	1,013 ***	0,952 ***	0,977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162 ***	0,994 ***	0,900 ***	0,976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134 ***	1,040 ***	0,913 ***	0,981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 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1,027 ***	0,925 ***	0,894 ***	0,902 ***	
Cronbach's Alpha	.854	.862	.881	.908	
후기 비행 청소년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000	1,000	1,000	1,000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장을 보이신다	1,043 ***	0,989 ***	0,998 ***	1,031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094 ***	1,067 ***	1,063 ***	1,019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1,040 ***	1,047 ***	1,093 ***	1,068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1,128 ***	1,027 ***	1,059 ***	1,081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276 ***	1,089 ***	1,137 ***	1,141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271 ***	1,020 ***	1,040 ***	0,997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281 ***	0,975 ***	1,029 ***	0,976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316 ***	1,013 ***	1,037 ***	0,981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 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1,157 ***	0,946 ***	0,892 ***	0,902 ***	
Cronbach's Alpha	.856	.868	.902	.903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의 애착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에 대해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

머지 관측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모든 관측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와의 애착 변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도 계수는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최소 .854에서 최대 .908로 나타나고,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소 .856에서 최대 .90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비행친구

비행친구 변인은 차별적 교제이론에서와 같이 비행친구의 수보다는 자신의 전체 친한 친구들 중에서 비행친구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전체 친한 친구들 중에서 비행을 저지른 친구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비행친구 변인의 항목은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한 친구의 비율’,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 시킨 친구의 비율’,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한 친구의 비율’, ‘다른 친구를 헐뜯은 친구의 비율’, ‘음란물을 본 친구의 비율’, ‘술을 마신 친구의 비율’, ‘담배를 피운 친구의 비율’,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친구의 비율’,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친구의 비율’,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친구의 비율’, 그리고 ‘가출한 친구의 비율’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비율척도로 구성하였다.

비행친구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들 모두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모든 항목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뢰도 계수에 대해서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최소 .800에서 최대 .884로 나타나고,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소 .734에서 최대 .9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항목들은 하나의 비행친구 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3> 비행친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항 목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초기 비행 청소년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1,000	1,000	1,000	1,000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키기	1,496 ***	1,033 ***	1,264 ***	0,640 ***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875 ***	1,213 ***	1,274 ***	0,715 ***
	다른 친구를 헐박하기	2,160 ***	1,339 ***	1,600 ***	0,951 ***
	음란물 보기	2,178 ***	0,947 ***	0,940 ***	0,606 ***
	술마시기	1,965 ***	1,118 ***	1,213 ***	0,810 ***
	담배 피우기	1,883 ***	1,786 ***	1,504 ***	1,017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2,146 ***	1,539 ***	1,557 ***	1,118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2,395 ***	1,571 ***	1,680 ***	1,165 ***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2,417 ***	1,366 ***	1,448 ***	0,869 ***
가출하기	1,230 ***	1,557 ***	1,455 ***	0,999 ***	
	Cronbach's Alpha	.884	.800	.812	.862
후기 비행 청소년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1,000	1,000	1,000	1,000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키기	1,717 ***	1,951 ***	0,952 ***	1,025 ***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958 ***	2,033 ***	1,071 ***	1,084 ***
	다른 친구를 헐박하기	1,980 ***	1,730 ***	0,894 ***	1,184 ***
	음란물 보기	1,379 ***	1,403 ***	0,999 ***	0,605 ***
	술마시기	0,856 ***	0,576 ***	1,323 ***	0,896 ***
	담배 피우기	1,093 ***	0,907 ***	1,513 ***	1,122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1,555 ***	1,239 ***	1,100 ***	1,303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1,854 ***	1,697 ***	1,623 ***	1,401 ***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1,663 ***	1,419 ***	1,404 ***	1,200 ***
가출하기	0,927 ***	1,419 ***	1,479 ***	1,060 ***	
	Cronbach's Alpha	.758	.734	.892	.911

* p < .05, ** p < .01, *** p < .001

4) 자기통제

자기통제 변인은 1차년도의 자료만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어린 시절의 잘 못된 양육에 의해 나타나게 되어, 한번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따라서 자기통제는 이론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기 보다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의 자기통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기통제로는 1차년도 자료에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해석상 편의를 위해 역부호화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4> 자기통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항 목	추정치	표준화 계수
초기 비행청소년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1.000	0.403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0.856 ***	0.345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248 ***	0.503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1.447 ***	0.583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170 ***	0.472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1.046 ***	0.421
	Cronbach's Alpha	.607	
후기 비행청소년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1.000	0.380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0.855 ***	0.325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425 ***	0.541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1.548 ***	0.588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160 ***	0.440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1.027 ***	0.390
	Cronbach's Alpha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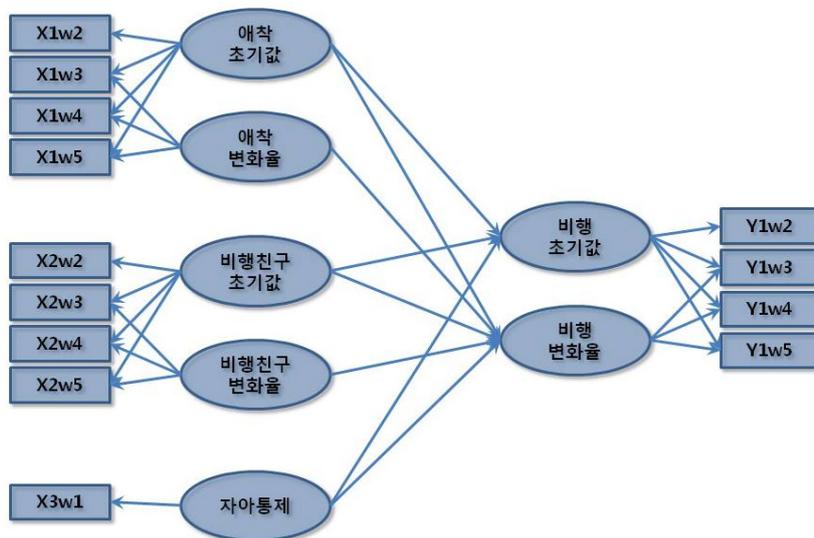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자기통제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 모두 2차년도에서부터 5차년도까지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기 비행청소년의 신뢰도 계수는 .607이었고,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584로 각 항목들에 대해 하나의 자기통제 변인으로 구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IV. 연구모형

발전-생애과정이론에서는 비행시작 연령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초기 비행청소년은 개인의 기본성향 면에서 결함이 있고, 어려서부터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반면 후기 비행청소년들은 청소년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시작 연령에 따라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들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성향 요인을 자기통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고, 주변환경의 변화는 비행친구와 부모애착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발전-생애과정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기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성향의 결함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비행청소년들은 주변환경의 변화보다 자기통제 요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후기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성향보다 주변환경의 변화가 비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후기 비행청소년들은 자기통제보다는 비행친구의 증가나 부모와의 유대 약화가 비행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이 연구의 연구모형

이를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 모형을 분석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시점의 변화에 따른 패널 개인들의 비행이나 범죄의 변이를 절편(intercept)과 기울기(slope)라는 잠재적 구조(latent structure)로 나타내어 개인 내(within-individual) 행동의 변화 유형과 이러한 변이에 따른 개인 간(between-individual)의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잠재성장모형은 시점의 변화에 따른 변인의 시작 정도(initial level)와 그에 대한 궤적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변화와 지속성에 관심을 주는 발전생애과정 이론의 검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첫째로 비행친구, 부모와의 애착, 자기통제가 각 집단(초기 비행청소년집단과 후기 비행청소년 집단)별로 첫 비행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로 비행친구, 부모와의 애착, 자기통제가 각 집단(초기 비행청소년집단과 후기 비행청소년 집단)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한 요인들이 비행에 대해 특정 시점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은 2차년도에 1.729에서 3차년도에는 1.730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4차년도에는 1.693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5차년도에는 2.32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2차년도에 34.989에서 3차년도에 35.131로 약간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는 34.35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차년도에도 34.000으로 감소했다. 비행친구는 2차년도에 0.778이었고, 3차년도에는 0.72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차년도에는 0.846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5차년도에는 0.838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구 분	요 인	1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2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3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4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5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초기 비행 청소년	비행		1.729 (2.955)	1.730 (3.480)	1.693 (3.372)	2.329 (4.298)
	부모와의 애착		34.989 (7.209)	35.131 (6.875)	34.350 (7.041)	34.000 (7.315)
	비행친구		0.778 (1.223)	0.720 (1.220)	0.846 (1.435)	0.838 (1.485)
	자기통제	21.224 (4.153)				
후기 비행 청소년	비행		0.983 (2.102)	1.017 (1.841)	1.748 (3.199)	2.164 (3.691)
	부모와의 애착		36.691 (7.074)	36.678 (6.925)	35.247 (7.574)	34.758 (7.286)
	비행친구		0.633 (1.013)	0.609 (0.982)	0.895 (1.547)	0.878 (1.578)
	자기통제	23.338 (3.786)				
비비행 청소년	부모와의 애착		37.430 (7.143)	38.215 (6.834)	37.681 (6.761)	37.121 (7.222)
	비행친구		0.279 (0.594)	0.314 (0.822)	0.296 (0.801)	0.223 (0.720)
	자기통제	24.339 (3.581)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에 대해 2차년도에 0.98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차년도에는 1.017이었으나 4차년도에는 1.748로 다른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비행청소년들과 비교하면, 모든 시기에 있어 후기 비행청소년에 비해 초기 비행청소년의 비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2차년도에서부터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3차년도에는 36.678로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기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

행친구는 2차년도에 0.633이었고, 3차년도에는 0.609로 다소 감소는 경향을 보이다가 4차년도에는 0.8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5차년도에는 0.878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비행청소년들과 비교하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초기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친구 비율이 후기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4차년도와 5차년도에서는 후기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친구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자기통제는 23.338로 초기 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非)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에 대해 2차년도에 37.430으로 나타나고 있고, 3차년도에는 38.215로 높아졌으나 4차년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행친구는 2차년도에 0.279였고, 3차년도에는 0.314로 높아졌으나 4차년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 비비행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하면,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모든 시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행친구에 대해서는 비비행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통제는 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각 변인별 변화형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6>과 같다²⁾. 우선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의 초기치가 1.665이고, 변량이 4.6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초기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 비행은 이들 간에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의 경우에는 평균이 0.142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변량은 1.42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2) 이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으로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자유모수 변화모형을 가정하여 각 변인들의 변화형태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보았다. 무변화모형은 요인계수를 모두 0으로 놓음으로써 전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고, 선형 변화모형은 변화량의 요인계수를 0, 1, 2, 3으로 고정하여 4년 동안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한 모형이다. 그리고 자유모수 변화모형은 2차년도의 요인계수를 0으로, 3차년도는 1로 고정하지만 4차년도와 5차년도의 요인계수는 미리 고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할 모형이다. 이들 각 모형에 대해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자유모수 변화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있어 비행에 대한 변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계수는 -0.407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비행을 많이 저지른 청소년일수록 이후 비행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잠재성장모형별 추정치

구 분	요 인	구 분	평 균	변 량
초기 비행 청소년	비행	초기치(Intercept)	1.665 ***	4.601 ***
		변화율(Slope)	0.142 *	1.426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407*	
	부모와의 애착	초기치(Intercept)	35.143 ***	26.571 ***
		변화율(Slope)	-0.085	0.100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308	
	비행친구	초기치(Intercept)	0.744 ***	0.563 ***
		변화율(Slope)	0.016 *	0.031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365	
후기 비행 청소년	비행	초기치(Intercept)	0.916 ***	0.835 ***
		변화율(Slope)	0.183 **	0.135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388	
	부모와의 애착	초기치(Intercept)	36.839 ***	25.626 ***
		변화율(Slope)	-0.315	0.533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328	
	비행친구	초기치(Intercept)	0.591 ***	0.105 *
		변화율(Slope)	0.066 *	0.035
		초기치-변화율의 상관계수	0.105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의 애착에 대해서는 초기치가 35.143이었다. 그리고 변량이 26.57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의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에 대해서는 평균이 -0.085이고, 변량이 0.10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계수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차년도 이후에 부모와의 애착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비행친구는 초기치 평균이 0.744이고, 변량이 0.56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차년도 비행친구는 청소년들 간의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의 평균은 0.183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변량은 0.13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경우에 비행친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의 초기치가 0.916이었고, 변량이 0.83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비행은 청소년들 간의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의 평균은 0.1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차년도 이후에 비행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변량은 0.13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 간의 개인적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초기치 평균이 36.839이고, 변량이 25.62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청소년들 간의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 이후에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비행친구는 초기치의 평균이 0.591이고, 변량이 0.105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비행친구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화율의 평균은 0.066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 이후에 비행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변량은 0.03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초기 비행청소년)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해 살펴보면, X^2 은 370.315 (D.F. = 11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X^2 값은 사례수가 많아지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X^2 값만을 가지고 연구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외의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RMR은 .042이고, RMSEA는 .053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모형이라 나타나고 있다. 또한 GFI와 CFI는 각각 .951와 .912로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합한 모형이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NFI는 .879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

지만 전반적으로는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비행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의 초기치와 자기통제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친구 초기치는 비행 초기치와 정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기통제는 비행 초기치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에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비행친구 초기치는 비행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의 비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행친구 변화율도 비행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차년도 이후에 비행친구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통제는 비행친구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에 비행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기 비행청소년)

요 인		비행 초기치	비행 변화율
부모와의 애착	초기치	0.042	-0.063
	변화율		0.111
비행친구	초기치	0.636 ***	0.213 *
	변화율		1.051 ***
자기통제		-0.307 ***	0.289 **
모형적합도 지수 ³⁾		$\chi^2 = 370.315$ (P = 0.0), D.F = 116 RMR = 0.042, RMSEA = 0.053 GFI = 0.951, NFI = 0.879, CFI = 0.912	

* p < .05, ** p < .01, *** p < .001

3) 이 연구에서는 χ^2 , RMR, RMSEA, GFI, NFI, 그리고 CFI와 같은 모형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들 중 χ^2 은 그 값이 작고, 유의도가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RMR과 RMSEA는 값이 0.05~0.08 정도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GFI, NFI, 그리고 CFI는 수용기준이 0.9이상일 때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의 <표 7>에서와 같이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비행 초기치와 변화율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비행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절대적인 비행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 이후에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행 변화율에 대해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청소년들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의 주장과는 다르게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지속,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의 비행 증가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지속이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지속과 발전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 수준을 나누어 비행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2차년도에서의 자기통제 수준에 따른 비행을 살펴보면, 자기통제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비행이 2.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른 자기통제 수준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을 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 수준에 따른 비행 정도의 차이는 3차년도 이후에도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비행의 정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초기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 수준별 비행정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체 변화
자기통제 낮음	2.410	2.689	2.161	2.642	
전년도 대비 변화		+ .279	- .528	+ .481	+ .232
자기통제 보통	1.588	1.514	1.565	2.120	
전년도 대비 변화		- .074	+ .051	+ .555	+ .532
자기통제 높음	1.085	1.337	1.376	2.103	
전년도 대비 변화		+ .252	+ .039	+ .727	+1.018

이러한 점은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제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이후의 다른 청소년에 비해 덜 비행을 저지를 수 있

다는 가정이다. <표 9>에서의 자기통제의 수준에 따른 전체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자기통제가 높은 집단일수록 3차년도 이후의 비행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시기별 변화만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2차년도의 비행정도에 따라 이후 시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에서도 초기 비행청소년일 경우에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가 부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차년도의 비행정도가 이후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종단적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의 영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2차년도에 많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일수록 이후의 비행정도는 2차년도에 상대적으로 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보다 전년도 대비 비행정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조사시작 시점 이전부터 많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이미 비행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후의 비행정도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비행의 지속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후기 비행청소년)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해 살펴보면, X^2 은 395.130 (D.F. = 11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RMR은 .045이고, RMSEA는 .056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모형이라 나타나고 있다. GFI는 .947로 .9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합한 모형이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NFI와 CFI는 각각 .879와 .862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비행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행친구 초기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친구 초기치는 비행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행친구 변화율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친구 변화율은 비행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2차년도 이후에 비행친구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후기 비행청소년)

요 인		비행 초기치	비행 변화율
부모와의 애착	초기치	0.000	-0.120
	변화율		0.112
비행친구	초기치	0.822 ***	-0.124
	변화율		1.205 ***
자기통제		-0.187	0.121
모형적합도 지수	$\chi^2 = 395.130$ (P = 0.0), D.F = 116 RMR = 0.045, RMSEA = 0.056 GFI = 0.947, NFI = 0.818, CFI = 0.862		

* p < .05, ** p < .01, *** p < .001

초기 비행청소년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우선 자기통제가 비행 초기치에 대해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행 변화율에 대해서도 자기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기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르는 반면,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통제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초기 비행청소년에게 자기통제는 비행친구와 함께 비행빈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후기 비행청소년에게는 자기통제보다는 비행친구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2차년도 이후의 비행 변화율에 대해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통제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더욱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는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VI. 결 론

이 연구는 기존 한국사회의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했던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근거로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비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행발달경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의 초기치와 자기통제였다. 반면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친구 초기치만이 비행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있었다.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들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기에 비행에 진입하는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후기에 비행을 진입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초기에 비행을 진입하는 청소년들과 후기에 비행을 진입한 청소년들은 최소한 다른 유형의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터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의 경우 인지 기능의 저하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내적 성향에 의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던 모피트(Moffitt, 1993)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로 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 초기치는 비행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차년도에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의 비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행친구 변화율도 비행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차년도 이후에 비행친구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통제는 비행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에 비행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의 주장과는 다르게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지속,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2차년도 이후의 비행 증가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종단적 연구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천정효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 비행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행친구 변화율이 나타나고 있다. 비행친구 변화율은 비행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2차년도 이후에 비행친구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비행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비행청소년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자기통제가 비행 초기치에 대해 후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 변화율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초기 비행청소년들과 후기 비행청소년들의 비행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부모애착의 경우 초기 비행청소년집단이나 후기 비행청소년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행의 발달에서 부모애착의 변화를 주장하며(Thornbery, 1987; Sampson and Laub, 1993), 비행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애착은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 사이에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초기 비행청소년이나 후기 비행청소년 모두에서 부모애착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보였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비행친구로 통제된 경우, 부모애착은 미약한 효과를 갖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liott et al., 1985; Stoolmiller, 1994).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해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과대추정되고, 부모애착이 과소추정된 결과가 아닐까 가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들을 비행대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비행을 시작하는 시점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비행을 경험하는 시점에 따라 이후 비행까지도 상이할 수 있으며,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비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비행이 이후 비행에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초기 비행청소년집단과 후기 비행청소년집단 중에서 어린 시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초기예방프로그램의 형성은 특히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두섭·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지역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8).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편의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pp.229-249.
- 민수홍(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pp.35-66.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pp.1-25.
-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7-47.
- 이경상·조혜영·박현수(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II: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8집, pp.159-181.
- 이순래(2005). 청소년비행에 있어 내적성향론과 생애과정론의 논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래·박철현(2000).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인행정학회 제9집: pp.81-125.
- 정혜원(2009). 인생사건이 비행시작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Barid, S. C., G. M. Storrs, and H. Connelly (1987). *Classification of juveniles in corrections : A model systems approach*. Washington, D. C: Arthur D. Litte.
- Bartusch D. R. J., D.R. Lynam, T. E. Moffitt, and P. A. Silva (1997). Is age important? Testing a general versus a developmental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Vol. 35*, pp.13-48.
- Elliot, D. S., S. S. Ageton and R. J. Canter.(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 drug use*. Beverly Hills, CA: Sage.
- Gibson, C. and J. Wright, (2001). Low self-control and coworker c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9 No. 6, pp.483-492.
- Gottfredson, M.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G., C. R. Tittle, R. J. Burski, and B. K. Amekiev,(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5-2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ngshore, D.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Vol. 45 No. 1, pp. 102-113.
- Longshore, D., and S. Turner,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5, pp.81-98.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pp.675-701.
- Moffitt, Terrie E., (1997),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 theories," In T. P. Thornberry (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Patterson, G. R., and K. Yoerger. (1993). *Developmental models for delinquent behavior*. In Hodgins, S. (Eds.), *Crime and Mental Disorder*. Newbury Park, CA: Sage.
- Patterson, G. R., B. D. DeBaryshe, and E. Ramsey.(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pp.329-335.
- Patterson, G. R., J. B. Reid, and T. J. Dishion.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olakowski, M. (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0, pp.41-78.

- Pratt T. C., and F. T. Cullen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Vol. 38, pp. 931-964.
- Sampson, R. J., and J. 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J., and J.H. Laub.(2003). Life-course desisters?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0. *Criminology*, Vol. 41, pp.301-339.
- Stoolmiller, M. (1994). Antisocial behavior,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nd unsupervised wandering for boys: Growth and change from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9 No. 3, pp.263-288.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2.
- Thornberry, T. P. and M. D. Krohn. (2001).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Susan O. White(Ed.), Handbook of Youth and Justice, New York: Plenum.
- Wood, P.B., B. Pfefferbaum, and B. J. Ameklev, (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ion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Vol. 16, pp.111-130.
- Wright, B., A. Caspi,T.E. Moffitt, and P. Silva,(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Vol. 37, pp.479-514.

ABSTRACT

Different Pathways to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 Delinquent Peer, Parent Attachment, and the Self-Control

Park, Hyun-Soo* · Jung, Hy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number of hypotheses concerning different routes to delinquency. These included the issues of self-control, delinquent friends, and parent attachment among adolescents who display an early versus late onset of delinquent behaviors. Five waves of data collected on 3441 adolesc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ifferent pathways.

Our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even though low self-control in the early stages of delinquent behavior has an influence on a juvenile who is just starting to be involved in delinquent behavior, it does not appear to have any effect on a juvenile who is involved in delinquent behavior later.

Second, the more delinquent friends an early starter acquires into their second year of delinquent behavior, the more delinquent behaviors they engage in. This indicates that self-control influences the change rate of delinquent behavior passively. The increasing speed of delinquent behavior for a juvenile with high self-control proceeded rapidly after the second year of being engaged in delinquent behavior. The faster the acquisition of delinquent friends for a late starter after the second year, the faster their delinquent behaviors increase. Lastly, both early and late starters were not influenced significantly by parents attachment.

Key Words : early starter, late starter, self-control, delinquent friends,
parent attachment.

투고일 : 12월 7일, 심사일 : 3월 15일, 심사완료일 : 3월 15일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 Dong-Eui University, Ph. D. in Sociology